

확진자 10일새 40여명 무더기 발생 총 140명

아파트 주민 10명·버스기사 3명·무증상 감염 등 '비상'

아파트 앞 선별진료소 설치 검진 마쳐, 확산 경로 등 조사중

지난 8월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후 이후 구로구를 비롯,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성북구 제일사랑교회, 관내 운행하는 시내버스 기사 3명과 구로동 모 아파트 같은동 주민 10명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아 그야말로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27일 오후 2시 현재 구로 관내 확진자는 140명으로 최근 들어 10여 일만에 40여명이 급증했다.

구로동 모 아파트에서 확진자 10명이 나왔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4일 이 확진자의 남편인 A씨와 자녀가 확진됐다. 이후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다. 26일 오후 5시까지 아파트 주민 430명이 검사받아 2명 양성, 428명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날 A씨의 직장이 인근 금천구인 한 공장에서도 직원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로구는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동 아파트 해당 동은 262세대 430여명이 거주 중으로 26일까지 아파트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실 환기구 등 감염

확산 경로도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13개 층으로 1988년 복도식으로 건립됐다.

한편 요즘 관내 신규 확진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30대부터 60대까지 청장년층은 물론이고 1세 유아부터 70대, 80대, 90대 고령층까지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구로구선별관리소의 경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소치로 줄어들었을 때 하루 평균 검사 인원이 30명대에 그쳤지만, 교회발 집단감염 사태 이후 6배 이상 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요즘엔 하루 평균 200여명의 검사자가 몰리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검사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선별진료소가 포화 상태"라며 "확진자가 늘어 접촉자 수도 많아져서 지원인력이 모자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27일 오후 2시 현재 구로구 관내 확진자는 140명으로 치료중 50명, 완치자 90명이며 자가격리자는 밀접접촉자 315명, 해외입국자 359명 등 모두 674명, 능동감시대상자 4명이다.

아울러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만민교회 10명, 부천시 쿠팡 5명, 리치웨이 16명, 해외 유입 3

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자 67명, 기타 13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확진자는 모두 3,386명으로 구청별로 보면 ▲사랑제일교회 소재 성북구가 253명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210명 ▲관악구 206명 등 3개구가 200명을 넘었고 ▲강서구 189명 ▲강남구 159명 ▲노원구 159명 ▲은평구 159명 ▲구로구 140명 ▲양천구 130명 ▲강동구 129명 ▲동작구 127명 ▲서초구 125명 ▲중랑구



구로 관내 확진자가 27일 오후2시 현재 140명으로 10여 일만에 40여명이 급증했다. 구로 동 모 아파트에서 확진자 10명이 나와 25일 아파트 앞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주민들을 상대로 검사를 하고 있다.

125명 ▲영등포구 113명 ▲도봉구 105명으로 모두 17개구가 이미 112명 ▲마포구 111명 ▲동대문구 100명을 넘었다. <채홍길 기자>

구로관내 시내버스 기사 3명도 확진

구로3동에 위치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버스기사 등 3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1일 버스회사인 보성운수가 운행하는 6512번 시내버스 기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22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동료 기사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추가 확진자들은 모두 무증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역당국이 회사 차고지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보성운수 직원과 가족 192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착수하면서

6512번과 5618번 버스 운행이 23일 오후 5시경가량 전면 중단됐다.

구 관계자는 "23일 저녁 6시부터 해당 노선을 70%로 축소해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2개 노선 가운데 5618번은 금천구 시흥동·독산동과 구로구 가리봉동·대림동, 영등포구 신길동과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거친다. 6512번 버스는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신림역, 구로디지털단지, 영등포구 신봉역·신길역, 구로역·남구로역 등 서남권의 주요 지하철역을 운행한다.

<김유권 기자>

2020 Jump Guro & Asia Culture Festival in Guro 2020

구로G 페스티벌

09.01^{TUE} ~ 09.27^{SUN}

구로G페스티벌 검색

참여형 축제

- 이연복의 맛있는 아시아
- 나 YouTube (유튜브, 사진공모)
- 먼나라 이웃나라 (AR체험)
- 온라인 인문학 강연

찾아가는 축제

- 랜선 노래자랑
- 집으로 배달콘서트
- 온라인 주민자치발표회
- 밖으로 나온 미술관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주최| **GA** 구로구 구로문화재단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 문화재단 | 협력·지원 | 연세대학교 | 우리시각 | 우리은행 | MBC+ D'LIVE CROWN

‘구로G페스티벌’ 코로나 속 9월1일 개막

27일까지 비대면·온라인·소규모 행사로... 넥타이마라톤 등 취소

구민상 시상식·온라인 주민자치발표회·비대면 랜선노래자랑 휴대폰사진 콘테스트·아시아국가 AR전시·배달콘서트 등 진행

구로구의 대표적인 축제 '2020 구로G페스티벌(Jump Guro & Asia Culture Festival)'이 오는 9월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구로G페스티벌'은 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매년 구로구에서 주최하는 '서울의 대표 아시아 문화 축제'이다. '구로 G페스티벌'은 기존 구로구의 대표 주민축제인 '점프 구로'와 2015년 개최한 '아시아 문화축제'를 2016년부터 통합해 만든 구로구 최대 축제다.

구로구는 "올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소규모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축제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부 프로그램은 △제30회 구민상 시상식 △온라인 주민자치 발표회 △휴대폰사진 콘테스트(사진 공모전) △나도 유튜브다(영상 공모전) △비대면 랜선노래자랑 △아시아국가체험 AR전시 △이연복

의 맛있는 아시아 △집으로 배달 콘서트 △밖으로 나온 미술관 등이다.

행사 일정을 보면 우선 9월7일(월) 사실상 개막식인 희망메시지 전달 및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식이 오후 3시 구민회관에서 수상자 등만 참석한 가운데 무관중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27일 폐막식도 무관중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공모전 수상자 등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24일-25일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는 촬영분을 유튜브로 송출해 구민과 함께 관람하고 온라인 심사를 통해 시상한다.

또 구민노래 실력을 겨루는 랜선노래자랑 '청춘스튜디오'가 딜라이브 방송을 통해 15일 오후 4시 온라인 송출된다. 신청은 노래방 어플 '썸썸'을 다운받고 노래하는 영상을 찍은 후 #청춘스튜디오#서울시#구로구 태그해서 업로드하면 접수완료다. 예선 마

감은 8일이다.

또한 원광대학교에서 주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공유하는 주민참여 영상 및 사진 공모전 '나튜브'를 진행한다. 영상 1점·사진 3점 이내로 18일까지다. G페스티벌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접수 후 동영상,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 미술관'은 4일부터 27일까지 디큐브광장 장미터널(신도림역)에서 아시아 관련 일러스트 작품, 프랑스 앙를렘 한국만화가 7인 특별전,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조선 왕릉, 왕실의 영혼을 담다'와 오류역문화공원(오류동역)에서는 야외조각이 전시된다.

또 행사기간 매주 화요일(1, 8, 15, 22일) 오후 3시 4회로 나눠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음식을 구민을 비롯한 시청자들에게 셰프 이연복과 구민이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맛있는 아시아'가 송출된다.

이어 3일 10일, 16일, 17일 오후 5시 나흘간 '집으로 배달 콘서트'가 방영되고, 5일부터 27일까지



구로구의 대표적인 축제 '2020 구로G페스티벌'이 오는 9월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구로구는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소규모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축제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동주민센터 주민자치발표회 포스터(왼쪽)와 솜씨를 미리 촬영한 모습(사진 위))

오전 10시~오후 6시 아시아 7개국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전시하는 '먼나라 이웃나라'를 구로G페스티벌 공식 유튜브로 송출된다.

26일 오후 3시에는 아시아 역사와 공연을 함께 즐길수 있는 소규모 강연 프로그램으로, 인문, 역사 분야 팟캐스트가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를 공개방송하는 '삼국지'로 중국을 만나다'가 온라인으로

방영된다. 한편 항상 행사 개막일 열렸던 'G밸리 넥타이마라톤대회'와 고척근린공원에서의 '노익장대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취소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행사 일정과 세부내용은 변경 될수 있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태풍대비 공사현장 안전 점검

개봉2동주민센터 신축공사 현장, 개봉고가 공사 현장 살펴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은 태풍 '바비'가 북상함에 따라 재난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지난 25일, 관내 주요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25일 태풍 '바비'가 북상함에 따라 재난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관내 주요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현장, 개봉고가 공사 현장) (사진은 현장상황과 태풍대비 시설안전 점검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있다)

먼저,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 추진현황과 태풍대비 시설안전 점검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진행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재해방지 측면에서 "이번 태풍 바비는 서해안을 따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해 공사장 가설 울타리 결속 상태, 주변 배

수로 등을 중점 점검 및 보강하여 공사현장에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개봉고가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현장사무실로 이동해 감리단장으로부터 공사 추진현황,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현안사항 등을 보고 받고 안전대책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장은 공사 중 발생하는 매연·분진·소음·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으니 매연·소음 감소 방안, 폐기물 처리방안 등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2023년 4월 예정된 준공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공사를 완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태풍을 대비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장점검을 마치고 박 의장은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해 구민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관내 외국인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 준다

구로 1만7,957가구에 가구당 30만원서 50만원까지

31일부터 9월25일까지 신청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외국인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에게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8월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가구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은 8월31일부터 9월25일까지이며 사이트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http://fds.seoul.go.kr>)로 한

국어, 영어, 홈페이지 구축 및 한국어, 영어, 중국어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다.

현장 방문신청은 오는 9월14일부터 9월25일까지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는 관내 16개 동주민센터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신청서 접수 및 선불카드를 교부하고 있으며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온라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준금액은 내국인처럼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이다. 선불카드 사용기간은 12월15일까지이며 신청후 14일 이내 문자로 통보한다.

구로구 관내 외국인주민은 모두 1만7,957가구다. 문의 : 02 2088-3370, 거주지 동주민센터, 120 다산콜센터. <채홍길 기자>

| | | | |
|--|-----------------------|---|--|
| 주간 구로오늘신문 |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 |
| 홈페이지 :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 | 구독료: 월 5,000원·연 50,000원 기사제보: 02)830-09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 |
| 회장: 유희상 | 발행인: 김유권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 |
| 주간: 한만수 | 편집국장: 채홍길 | | |
| 등록번호: 서울 다-5105 |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 | |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3자리수’ 전국 대유행 위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14일부터 열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23일에는 397명까지 치솟아 400명에 육박했다.

특히 그동안 1~2명에 그쳤던 비수도권의 일부 시·도에서도 10명 안팎씩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는 전국적 대유행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나, 3단계 격상이냐를 놓고 정부의 고민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근 2주간 하루 200~400명에 달하는 등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들어온 데다 ‘깜깜이’ 환자까지 급증해 지금의 확산세를 잡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주를 ‘중대기’로 보고, 일단 3단계 실행 준비 작업에는 착수했다. 다만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조치로, 사회적·경제적 타격이 심대한 만큼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 하루 평균 확진자 200명대 · 잠잠이 환자도 한때 20%

지난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망의 통제력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다다랐다.

최근 2주간(10~23일)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2천625명으로, 일평균 187.5명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격상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동안 2주 평균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면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단계를 결정한다고 설명해 왔다.

◇ 고위험군 노인 환자 비율도 최근 32%로 높아져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3일 47명에서 14일 85명으로 1.8배 늘었고, 15일에도 155명이 발생해 또다시 전날보다 1.8배 증가했다.

여기에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23일 사흘간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3일에는 397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최근 열흘간 누적 확진자만 2천629명에 달한다.

위중·중증환자 역시 지난 18일 이후 일별로 9명→12명→12명→18명→25명→30명을 기록하며 연일



전국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14일부터 열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23일에는 397명까지 치솟아 400명에 육박해 전국적 대유행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나, 3단계 격상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사진은 관내 시내버스기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구로3동 보성운수 차고지와 구로구선별진료소)



증가하고 있다. 고위험군인 노인 환자 비율도 최근 32%로 높아졌다.

이에 더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한때 20%를 넘었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지난 22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70개만 남은 상태여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정부의 언급대로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다.

◇ 정부, 3단계엔 신중한 입장 ... 세부지침 준비엔 착수

이처럼 상황이 악화하자 수도권이라도 조속히 3단계를 적용해 확산세를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3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혀 3단계 격상 여부를 둘러싼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방역과 경제, 일상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3단계 격상 요구가 거세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3단계로 가게 되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과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또 학교는 휴교

집작해볼 뿐이다.

이씨는 “치료를 위해 에이치아 이브이(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약 칼레트라를 먹으면서 극심한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순식간에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젊은 분들 중엔 코로나19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생활방역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고통을 너무 잘 알기에 주변에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의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선 방역당국이 감염경로나 확진 통계 중심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목이다. 이날

“증상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고 밝혔다. 강의를 하기 어려워 1년 휴직도 고려하고 있다.

외국에선 이미 후유증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탈리아 의료진이 143명의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연구해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125명(87.4%)이 하나 이상의 후유증을 앓은 걸로 조사됐다. 만성피로(53.1%) 호흡곤란(43.4%) 관절통증(27.3%) 가슴 통증(21.7%) 등이다. 후각 마비, 두통, 식욕부진, 기침, 현기증 등의 후유증도 보고됐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1% 미만의 환자는 폐 조직이 망가져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결국 (사후) 모니터링을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증환자도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무증상 또는 경증 상태로 회복한 27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5%가 미열·피로·기침 등을 겪어 감염되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이들은 사전 방역과 확진자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에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 교수는 후유증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등에 연락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영국과 이탈리아는 국가 주도로 후유증을 겪는 코로나19 회복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직 국내에선 코로나19 치료 이후의 추적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중증환자가 많았던 곳을 보면 중증환자의 후유증이 많이 보고되지만 아직 국내에선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추적관리를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정부 “2단계 유지” “3단계 격상” 놓고 고민 ‘깜깜이 환자’ 까지 급증 ‘강력한 한방’ 필요 실내외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꼭 지켜야

단계로 올려서 국민의 경각심을 90%로 올리면 1주일 지나 효과가 나온다”면서 “상처는 깊어서 화농이 됐는데, 아프다고 살을 찌지 않으면 패혈증이 오고, 전신에 균이 퍼져 손쓰기도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간 신중한 기조를 고수해 온 정부도 3단계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는 쪽으로 입장이 변하고 있다. 당국자들의 관련 언급은 “3단계 격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20일)→ “확산세가 유지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21일)→ “수도권에만 적용할지, 전국적으로 적용할지 추이를 보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 3단계 세부조치가 다양하데 계속 준비하고 있다”(23일) 등으로 변해 왔다.

◇ 3단계는 사회적·경제적 활동 제외 일상활동 정지 의미

다만 정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에 들어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주 정도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방역본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해 3단계 상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 완치돼도 탈모, 불면증, 두통 등 후유증 남아

대학생 이정환(25)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두어달 뒤에 6월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방역당국은 그를 ‘완치자’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씨는 코로나19의 후유증에선 벗어날 수 없었다. 치료 중 생긴 심한 탈모 증상 때문에 아직 피부과에 다니지만 원인은 모른다. 감염 뒤 2주간 열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결과라고

오후 5시 기준 정부가 밝힌 완치자는 1만4219명이다.

◇ ‘완치자’ 보다 ‘회복자’ ‘생존자’로 바꿔 불러야

특히 ‘부산 47번째 확진자’로 후유증을 페이스북에 구체적으로 공개해 관심을 모은 박현(48) 부산대 기계공학부 겸임교수는 ‘완치자’ 보단 ‘회복자’나 ‘생존자’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제안한다. 완치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후유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난 3월 회복하고 퇴원한 지 170일이 훌쩍 지났지만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박 교수가 겪고 있는 증상은 크게 다섯가지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만성피로’ 앓아만 있어도 불편한 ‘가슴 통증’과 ‘위장 통증’ 피부가 검붉게 변한 ‘피부질환’ 머릿속에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브레인 포그’를 호소했다. 그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구로 '洞복지대학 컨소시엄 협약식' 개최

구로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동복지대학 컨소시엄 협약식'을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 구청 3층 창의홀에서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이성 구청장과 구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철학 위원장, 구로3동 주민센터 정영실 동장,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안민숙 관장, 그리고 구로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상덕 위원장, 구로5동 주민센터 소세훈 동장, 화원종합복지관 김영화 관장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협약서 서명, 기관별 영상 시청 및 사업 설명에 이어 주민의 교육을 컨설팅 해줄 복지관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 구청장 인사말, 서울시 찾동 추진단의 동복지대학 핵심리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동복지대학'은 동 지역사회보



구로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동복지대학 컨소시엄 협약식'을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 구청 3층 창의홀에서 개최했다.

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직접 동 복지의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민주도력을 향상 시키는 교육과정으로, 주민이 중심되어 복지의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주민주도로 할 수 있도록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주민센터, 복지기관이 함께 주민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복지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구로 '동복지대학'은 지난 3월

서울시 공모사업인 '2020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구로3동과 구로5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2021년까지 2년간 추진하게 됐다.

이동섭 복지정책과장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주민센터-복지기관 간 협력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주민주도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연말까지 실시

구로구가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집임을 알리는 명패를 달아드리다"고 밝혔다.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지난해부터 국가보훈처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관내 참전유공자 1,299명, 무공수훈자 46명, 보국수훈자 185명, 4·19 공로자 1명, 5·18 희생자 7명, 특수임무공로자 9명 등 총 1,547명이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관내 국가유공자 1,199명, 독립유공자 유족 62명, 민주유공자 7명 등 총 1,268명의 집에 명패를 부착했다.

구로구는 지난 18일 구로구 보훈단체장(월남전참전유공자 지회장) 변주태씨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부착했다. 이날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명패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강월명 복지기획팀장은 "명패 부착으로 가까운 이웃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숨은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복지정책과 860-3068. <김유권 기자>

동지역사회보장체 위원장협의회 수재의연금 100만원 기탁

구로호남향우회연합회도 구레·곡성군에 수재생필품 전달

구로구 동지역사회보장체 위원장협의회 이상덕 회장은 지난 8월18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구로구 자매도시 수해복구를 위한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이성 구청장에게 기탁했다.

이 자리에는 송인태 오류2동위원장(부회장)과 안강현 개봉3동위원장(감사) 김재숙 고척2동위원장(총무)이 함께했다.

또한 구로구호남향우회연합회는 구로구 자매도시인 구레군과 곡성군에 쌀, 치약·치솔, 샴푸,



구로구 동지역사회보장체 위원장협의회 이상덕 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구로구 자매도시 수해복구를 위한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이성 구청장에게 기탁했다.

화장품 등 생필품 600여만원 상당을 트럭 2대에 나눠 신고 현지 군청에 직접 전달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수해 가평군에 복구물자 지원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은 지난 8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폈다.

이날 공단 직원 3명은 가평군을 방문하여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작업물자, 음료, 다과 등을 전달했다.

물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준비했으며, 복구활동을 실시 중인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 전달했다.

공단은 당초 최대 가용인원으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을 찾아 성품을 전달했다.

직접적인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계획했으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물품지원으로 변경했다. <채홍길 기자>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기준일(8.27)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지원대상: D-1, D-3, D-5~D-10, E-1~E-10, F-2, F-4, F-5, G-1, H-1, H-2 비자

<지원 제외대상>

- 2020년도에 아래의 정부(서울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 코로나19 생활지원비(14일 이상 입원·격리자)
 -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5일 이상 입원·격리자)
 - 실업급여
- 국내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 단기체류 자격 및 국내에서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체류자격 소지자
 - D-2, D-4, G-1-10 비자, F-4 중 단순노동 및 취업제한 업종 종사자

2. 지원기준일: 2020.8.27.(목)

o 2020.5.28. 이전부터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한 자

3. 신청기간: 2020.8.31.(월)~9.25.(금)[4주]

- 온라인 신청: '20. 8. 31.(월) 9:00 ~ 9. 25.(금) 17:00[4주, 주말포함]
 - 인터넷 접수: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 (<http://fds.seoul.go.kr>)
- 현장방문 신청: '20. 9. 14.(월) 9:00 ~ 9. 25.(금) 18:00[2주, 주말제외]
 - 체류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지원센터 및 현장 접수처 방문시 5부제 실시(출생연도 끝자리별로 방문 요일 제한)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단, 주말의 경우 온라인접수지원센터는 제한 없이 방문 가능(현장접수처는 휴무)

4.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기준 미적용)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월소득 | 1,757,194원 | 2,991,980원 | 3,870,577원 | 4,749,174원 | 5,627,771원 | 6,506,368원 |
| 지원금액 | 30만원 | | 40만원 | | 50만원 | |

5. 지급방법: 선불카드 (사용기한: '20.12.15.까지)

6. 지원시기: 신청 후 14일 이내 문자통보 (신청건수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7.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신분증 지참

8. 문의: 02-2083-3870, 거주지 동주민센터, 120다산콜센터

남구로시장 고객편의시설 '구구쉼터' 문열어

총 면적 53.2㎡ ... 냉난방시설·유아휴게실·도서 등 갖춰

구로 관내 최대 전통시장인 남구로시장의 고객 편의 시설 '구구쉼터' 개소식이 지난 20일 오전 10시 이성구청장, 이희술 남구로시장 상인회장,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과 시장상인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소식은 현판 제막식, 개소식 개최, 협약식, 축사,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성 구청장과 박동웅 구로구의회장이 축사를 했고, 이희술 남구로시장 상인회장이 답사로 화답했다.

이번에 개소식을 가진 '구구쉼터'는 구로동 730-119 남구로시장 중간에 면적 53.2㎡ 규모로 고객의 휴식 및 만남의 공간으로 책상, 의자, 세면대, 냉난방시설, 유아휴게실 등을 갖추고 1,300여권의 다양한 도서도 구비했다.

구로구는 남구로시장 고객편의 시설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억여원을 들여 공간을 확보하고, 올해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 조성공사를 마쳤다.

구구쉼터는 남구로시장 상인회



관내 최대 전통시장인 남구로시장의 고객 편의 시설인 '구구 쉼터' 개소식이 지난 20일 이성 구청장, 이희술 남구로시장 상인회장,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과 시구의원, 시장상인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가 위탁·운영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용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한다. 관리자를 지정해 환기, 마스크 착용, 발열 여부 체크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한다.

남구로시장에는 2020년 현재 모두 203개의 점포가 입점되어 있다.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은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었던 남구로시장에

쉼터가 생겼다"며 "방문객들과 상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 참석 내빈은 서울시의회 장인홍, 이호대 의원, 구로구의회 조미향 운영위원장,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 서호연 예산결산위원장, 노경숙 안전관리위원장, 박철성, 김철수 의원 등이 참석해 '구구 쉼터' 개소를 축하했다.

〈채홍길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19세기초에 처음 제작된 자전거는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이면서 세계적으로는 스포츠와 산업의 기초로 발전했다. 자전거는 많은 나라에서 도로교통수단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관광여행은 영국에서 가장 많지만 독일과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에서도 늘

자전거의 원리는 간단하다.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돌리고 양손으로

는 핸들을 잡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틀면 가게 되어 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자전거 타기 ①

고 있다. 가장 오래된 자전거 관광여행 클럽은 1870년에 창설된 런던의 '픽윅 바이시클 클럽'(Pickwick Bicycle Club)이다.

자전거는 프랑스·독일·벨기에에서 경주에 널리 이용되며, 그 정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영국·미국에서도 자전거 경주를 한다. 자전거를 탄 사람은 16~20km/h, 즉 보행의 약 4배 속도를 쉽게 낼 수 있다.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여행은 많은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흔히 클럽에서 대규모의 행사를 관장하고 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그냥 멈춰 서 있는 기계일뿐이다. 물론 요즘 전동 자전거가 나와서 페달을 돌리지 않아도 전기의 힘으로 기아를 돌려 움직이는 자전거도 있기는 하다.

자전거가 움직이는 원리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비슷하다. 사람도 계속 일을 할 때 삶의 원동력을 느낀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면 식물과 별로 다르지 않다. 식물은 물과 거름만 주면 살지만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다. 〈본지 회장〉

'2020 청소년 어울림마당' 온라인 개막식 개최

12월까지 5회 걸쳐 온·오프라인 운영

구로구가 '2020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온라인 개막식을 지난 21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구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시립구로

청소년센터가 주관했다.

개막식 영상은 시립구로청소년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축하 인사말, 마술동아리 축전, 동아리활동 소개 등이 진행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임 이벤트, 온라인 체험부스도 열렸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5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코딩·로봇·드론 등 4차산업 체험, 핼러윈축제,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경애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이

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

그램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돈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육판 양장/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www.songlin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푸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미용업 허가제서 신고제로 바뀌며 '포화' 상태

구로 16개洞서 총 1,058개소 영업... 개업대비 71% 문닫아

미용업이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거리제한이 없어졌다. 예전과 다르게 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서 같은 건물에 미용실이 2개 업소가 들어선 경우도 있다. 미용업이 동네 장사라는 인식까지 사라지면서 구로구에는 1058개 업소가 난립하고 있다. 한 집 건너 미용실이 있을 정도이다. 수요인 보다 공급처가 과다할 정도로 많으니까 코로나 사태 불경기에 미용업계는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대한미용사회 구로구지회 김재숙 지회장은 "세미나를 열고 위생

교육을 시킨뒤에 수료증을 수여하였으나 회원들이 자율로 중앙회에 신청하여 위생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아 회비로 운영하는 지회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미용실이 난립하다 보니 그나마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고객 수는 한정 되어 있어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장소를 이전해서 개업을 한 서지혜 헤어샵 원장인 서지혜 헤어디자이너는 "미용실 창업을 할 때에는 보증금을 포함한 시설

비가 4천에서 8천, 1억을 준비해야 문을 열 수가 있다. 그나마 예전처럼 단골손님으로 운영이 될지 미지수다. 워낙 미용실이 난립하다 보니 경험이 적은 초보자도 창업을 한다. 결국 미용인들은 제 살 깎아 먹기로 나갈 수 밖에 없다"라며 현 제도가 충분한 보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전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도 지난해 같은 경우 110개 업소가 개업을 했는데, 무려 71%인 79개 업소가 폐업을 했다. 개업을 해서 두 곳 중에 한 곳 이상은 폐업을 한다는 결론이다. <김유권 기자>

'G밸리 우수기업 온택트 채용박람회' 열린다

9월 7~25일 온라인 개최... 홈페이지서 채용정보 화상면접 등 진행

'G밸리 우수기업 온택트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구로구는 "G밸리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고,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채용정보와 구직자정보를 등록·운영하고, 입사지원과 화상면접의 기회도 마련한다. 구인·구직정보 매칭 서비스, 무료 입사지원서 컨설팅도 실시한다.

취업을 원하는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박람회 전용 홈페이지(www.ontactjobfair.com)에 접속

하면 된다.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각종 혜택도 제공된다. IT활용가능 직무에 청년 채용 시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이공계 전문여성아카데미를 수료한 인력 채용 시에는 1명당 240만원을 지급한다.

박람회 참여를 원하는 G밸리 소재 기업은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내달 1일까지 이메일(support@korea.jobfair.com)로 제출하면 된다.

조희숙 일자리지원과장은 "기업에는 우수인재 발굴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채용박람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일자리지원과 860-2045. <채홍길 기자>

'남쿠칭로' '넥타이마라톤로' 명예도로명 부여

해외 자매도시-넥타이마라톤대회 명칭 따와... 국제교류 증진-대외 홍보효과

주민공모·온라인 투표·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구로구가 관내 도로 2곳에 명예도로명 '남쿠칭로'와 '넥타이마라톤로'를 부여했다.

구로구는 "구로의 역사와 도시 브랜드 홍보에 명예도로명을 활용할 계획이다"며 "주민공모, 온라인 투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근 명예도로명 2개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남쿠칭로'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인근 새말로18길(구로동 50-8~26-1번지) 279m 구간이다. 최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해외 자매도시 말레이시아 남쿠칭시에서 이름을 따왔다. 상호 도시 간 우호 증진, 관내 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 관광객 유치 등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담았다. '넥타이마라톤로'는 구로디지털단지 내 디지털로(구로동 843~179-13번지) 777m 구간으로 2003년부터 해마다 넥타이마라톤대회가 개최되는 곳이다. 구로구 대표 축제인 넥타이마라톤대회를 알리고, 구로공단에서 첨단 IT 산업단



구로구가 관내 도로 2곳에 명예도로명 '남쿠칭로' (왼쪽)와 '넥타이마라톤로' (오른쪽)를 부여했다.

지로 변모한 '구로디지털단지'의 기업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명예도로명들은 앞으로 5년간 사용된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9월 중 명예도로명 표지판을 부착할 예정이다"며 "'남쿠칭로'와 '넥타이마라톤로'가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어학·인문학·소품공예·악기연주 등 12개 강좌

구로구가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며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 중 선호도가 높은 12개 강좌를 선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역 주민과 관내 직장인이 대상이며, 프로그램은 내달 초부터 한 달간 주 1회씩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

슬기로운 리본 취미생활 ▲보태니컬 색연필 아트 ▲시민 팟캐스트 기초 인터넷 라디오랑 신나게 놀자! ▲금요일에 만나는 스페인어 ▲엄지손피아노 칼림바 ▲붓펜으로 시작하는 캘리그래피 ▲청바지 입고 오페라 산책 ▲질문유발 생각유발, 그림책 하브루타 ▲마을변신 프로젝트 체인지메이커 워크숍 ▲부동산 경매로 내 집 마련하기 ▲유럽을 여행하며 인문학을 만나다 ▲창업에서 운영까지, 1인 출판사 경영의 모든 것 등의 다양한 강좌가 펼쳐진다. <한만수 기자>

G밸리 타운매니지먼트 사업 추진

지역 주체가 직접 관리·운영... 문화공간조성,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진행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2억5,000만원 예산 확보

구로구가 G밸리(구로디지털단지) 일대를 대상으로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을 펼친다.

'타운매니지먼트(TM, Town management)' 사업은 주민과 상인 등 지역주체가 그 지역을 직접 관리·운영해 도심 소규모 지역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도심 활력과 긍정적 파급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구로구는 "G밸리가 서울시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며 "이에 따라 첨단 IT 벤처산업으로 대표되는 G밸리의 인적·물리적 자원을 활용해 자발적·지속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민관관리체계 구축, 광장과 저이용 공공공간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문화공간 조성, G밸리 종사자와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 등이 추진된다.

구로구의 G밸리 일대는 공공공간의 면적, 지역 축제 추진 현황, 사업계획의 정확성, 실현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배광선 도시재생과장은 "타운매니지먼트는 기업 종사자와 주민들 스스로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는 주체가 되는 사업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G밸리가 업무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대학별 맞춤형 입시설명회' 온라인 개최

9월1,2일 오후 6~10시

구로구가 대학별 맞춤형 입시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서울시교육청 대학지도지원단 소속 강사들이 대학별 입시 전형을 설명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을 제공한다.

설명회는 9월 1, 2일 이틀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A~D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A반이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인하대 야주대 숭실대 국민대 광운대, B반

이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대 단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한국항공대, C반이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서경대 한성대 삼육대, D반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의 입시 전형을 다룬다. 정원은 반별 4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관내 고3 수험생과 학부모는 28일까지 구로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edu.guro.go.kr/study/)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 <김유권 기자>

서울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12종 다중이용시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 시행

10인 이상 집회도 금지

24일 오전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시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24일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와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

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1차레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또 시는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일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은 증상과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하게 검사받을 것을 요청한다"며 "떡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각종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채홍길 기자〉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구로구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을 맞아 주민세 납부를 안내한다.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납부 금액은 개인이 6,000원, 개인사업자가 6만2,500원이며, 법인

은 6만2,500~6만5,000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된다.

납세자는 ▲서울시ETAX(<https://etax.seoul.go.kr>) ▲현금지급기(CD/ATM)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 ▲ARS(1599-3900)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173.

〈김유권 기자〉

'집단휴진'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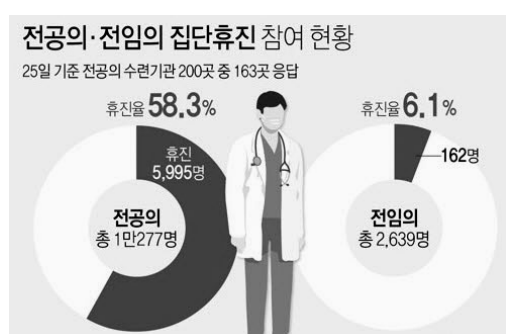
수도권 수련병원 95곳 대상... 의대생 국시도 응시취소 방침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국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더 이상의 '진료 공백'을 방지할 수 없다는 뜻에서 내려진 조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대전협 측이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



역시 집단휴진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의사를 다시 물은 뒤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한만수 기자〉

구로경찰서-에듀윌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교재 지원 협약식'

구로경찰서(서장 이병귀)와 에듀윌(대표 박명규)의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진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지난 19일 구로경찰서 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약식에는 이병귀 서장, 박명규 대표와 구로지역 청소년 보호시설 및 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듀윌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5천500만원 상당의 검정고시 수강권 및 교재 세트를 지원한다.

이병귀 구로경찰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에게 성취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경찰서와 에듀윌의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진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지난 19일 구로경찰서에서 열렸다.

박명규 대표이사는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이번 검정고시 지원 사업 역시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방위교육도 온라인으로 실시

9월 1일부터 11월 30일

구로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민방위교육을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민방위 1~4년차 대원은 연 4시간의 집합교육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 훈련을 받아왔으나 올해는 모든 연차에서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대체한다.

교육대상자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방위사이버교육 홈페이지(www.cmes.or.kr)를 방문해 이름, 생년월일 등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시간 동영상 시청 후 객관식 20문항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고 70점 이상

이면 교육이수 처리 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감염병 예방, 재난대비 행동 요령 등이다.

교육은 PC, 스마트폰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사이버 수강이 어려운 경우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교육 교재를 받고 과제물을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 올해 현행에 참여한 대원, 집중호우 관련 재난봉사 활동을 한 대원은 증빙자료 제출 시 민방위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대원들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구청 도시안전과 860-2326. 〈한만수 기자〉

수도권 초중고, 고3 빼고 원격수업

9월11일까지 3주간... 교육부 "3단계 방지 선제적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모든 학교의 등교가 중지된다.

서울·인천·경기의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단, 고3은 예외적으로 등교를 유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5일 수도권 교육감들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도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예정대로 치르기 위해서

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빨리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수도권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다만 진로·진학을 위해 등교가 불가피한 고3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9월 11일까지 적용되던 향후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를 중단한 학교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기준 12개 시도 2100곳이다. 지난 5월 개학 이후 등교 중단 학교가 2000곳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김유권 기자〉

박은영 시인 '구름은 울 준비가 되었다' 출간

'개성과 철학' 삶의 성찰 두루 갖춘 '연금술사'

나의 마음과 눈을 강하게 불드는 젊은 시인이 있다. 그는 바로 박은영 시인이다.

2018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발코니의 시간'이 당선됐고 전 북도민일보 '인디고'가 당선됐다. 이밖에도 제1회 농어촌희망문학상 '쑥' 제2회 제주4.3문학상 '북촌리의 봄'이 대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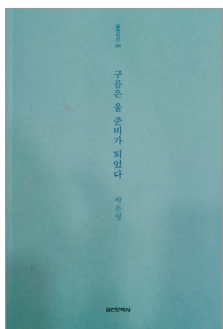
천재시인일까? 아니면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시어를 발굴하는 노력과일까?

어찌되었든 박 시인의 시를 읽고 있노라면, 젊은 사람이 이렇게 깊은 시를 쓸 수 있지 감탄하게 된다.

젊고 늙고 경륜이나 연륜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아픔을 얘기하면서 함몰되지 않는 팽팽한 선(線) 외줄타기를 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노련한 춤꾼을 보는 듯하다.

박 시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전달방법이 신선하며 미묘하고 구체적이다. 시인이란 자신



의 언어로 독자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자 일 것이다. 직유(直喩)와 암유(暗喩)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상징성을 짙게 만든다. 독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나는 삼 한 자루를 가지고 부화했다 / 밤늦도록 땅을 파며 놀던 / 나의 먹살을 전 아버지처럼 손아귀의 힘이 강해 진다/ 파도 파도 배고픈 날들/ 밥그릇 수만큼 삼은 커다래지고/ 손톱은 삼날에 찍혀도 흠집이 나지 않는다/ 한 삼 한 삼 퍼 울린 흙더미에/ 아내가 달려오고/부화한 새끼들이 배고픈 줄도 모른 채/ 흙가루를 날리며 웃어 댄다/ 움켜쥐는 법을 터득한 후 빨라진/ 삼질의 속도./ 밥그릇이 쇠소리를 내며 바닥을 드러낸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산자락/ 수평선 안쪽으로 각혈처럼 노을이 고인다/ 세상이 한 삼 가득 어둠을 떠먹는 시간/ 갈기를 세운 사자자리 별뿔별에/ 어

깨는 움츠려들고/ 삼자루를 쥔 흙투성이 손은 굳어 퍼지질 않는다/ 이제 삼을 내려놓아야 할 때/ 한 평생 파놓은 깊은 어두운 구멍이/ 겨우, 내 한 몸 널 자리다]

〈시 토구(土狗)전문〉

위의 토구(土狗)에서 보듯 삼한 자루로 세상을 파먹으며 살아가는 흙수저의 삶을 화자(話者) 자신 1인칭으로 전개한다. 그러다가 [겨우, 내 한 몸 널 자리라고 무소유(無所有)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 허무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삼]이란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지루하거나 구태로 빠지지 않으면서 빈한(貧寒)한 삶의 이미지를 확장시킨다.

박 시인은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에도 연속성이 없어 묻히는 시인들이 많다. 그러나 박은영 시인의 보폭은 남다르다. 우선 천착(穿鑿)해 나가는 출발점이 돋보이고 어휘력이 뛰어나다. 추측하건데 다독(多讀) 다사(多思) 다작(多作)을 많이 해 삼다(三多)를 겸했으리라 짐작해본다.

앞으로 시단을 이끌어갈 그녀의 행보가 주목된다.

〈조윤주 시인·객원기자〉

구로 '코로나19 극복 사진 공모전' 개최

구로구가 원광디지털대학교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하며 응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대상은 코로나19 대처 모습을 주제로 촬영한 휴대폰 사진이다. 주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1인당 3점까지 출품 가능하다.

응모기간은 9월 18일까지며, 참여방법은 '구로G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https://gffestival.co.kr>)를

참조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구로G페스티벌 SNS에 게시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은누리상품권 등 소정의 상품이 수여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대처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독자 초대 수필

내가 청바지를 입는 이유

임대성



나에게 얼마 전 두 가지 일이 있었다.

한 가지는 김형석 교수님이 쓰신 '백년을 살고보니'란 책을 수년전에 구입하여 읽었으나 최근에 다시 책을 읽게 되었는데, 책 뒷 표지에 아래와 같이 글이 쓰여 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인생의 황금기는 60~75세' 즉, 정신적인 성장과 인간적인 성숙은 한계가 없다는 얘기다.

나도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아무리 40대라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늙스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모든 것은 순조로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도전 을 포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한다'는 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 옮겨본다.

또 한 가지는 부산 출장 중에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한 처분이 교원공제회 주관 부산 해운대 센트리움에서 '은빛동행 청바지 콘서트'를 한다고 초청을 하여 간적이 있었다. 단,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청바지를 입고 오라고 초청장에 쓰여 있다.

마침 몇 년전 미국 출장을 갔다가 사온 청바지가 커서 줄여 놓았는데 이걸 그냥 입고 갔다. 콘서트에 변진섭, 김연자 등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하고 메인으로 이문세가 나와 노래를 부르는데 20~30대로 돌아 간 것 같았다.

특히,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세월이 지나가면' 등은 감명깊게 잘 들었는데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 되 뇌이며 노래를 불렀을 정도로 여운이 컸다.

콘서트에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60대 이후 분들이다.

사회자가 청바지를 입고 오라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현직인 교직에 있을 때는 못입어 보신걸로 짐작하고 오늘 '은빛동행 콘서트'에 오면서 청바지를 입고 오라고 한 것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라는걸 강조하기 위해 '청바지'를 입고 오라고 했다고 한다.

이 두가지 일이 클로즈 업 되면서 인생의 황금기에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다 자라고 내 시간들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이다. 그런 의미에서 콘서트 주제처럼 청바지를 즐겨 입으려고 한다. 그 동안 못 입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청바지를 입고 마음속으로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라고 되뇌이며 살자. 청바지를 입으니 편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다.

그 일 이후로 대중가요의 노래 나훈아의 '청춘을 돌려다오'나 '고장난 벽시계'가 아닌 '청춘은 지금부터'이니 오늘도 청바지를 입으며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라고 되뇌이며 청바지를 입고 출근을 한다.

• 임대성 △수필가(2013년 국제문예 등단) △재경함안항우회 회원, 강남문인협회 회원 △공학박사, 기술사



당신이 희망입니다

거창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더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듯이,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경제적 어려운 이웃을 지원합니다.

지원문의 : 구로희망복지재단 02)867-1695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2-5774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